

Vol.봄



꽃섬에서 온
봄 편지

꽃섬 남해

NAMHAE ESSAY_꽃섬 남해

SEASONS ISSUE_꽃바다

SPECIAL PLACES_설천면

HIDDEN SPOTS_보물찾기

NAMHAE TRAVEL_NEWS





꽃섬 남해

NAMHAE ESSAY : 꽃섬 남해

남해에서 온 엽서

SEASONS ISSUE : 꽃바다

이슈 기획 _ 꽃바다

다랭이마을 유채꽃 | 두모 유채꽃 | 추도공원 동백꽃 | 왕지마을 벚꽃

SPECIAL PLACES : 설천면

남해각 | 총렬사 | 산성식당 | 카페 월마 | 돌탑갤러리 | 눈내목욕탕미술관 | 티라와 흙깎노리
남해상상양떼목장 편백숲 | 대국산성 | 이순신순국공원

HIDDEN SPOTS : 보물찾기

남해청년센터 바라 | 행복베이커리 | 단골집 | 화랑갈비 | 바래온 | 라키비움 남해 | 카페 톨

포토존 남해바다정원 | 순례자의 쉼터_물건리 살롱장로교회 종탑 | 설리버스정류장

NAMHAE TRAVEL NEWS

남해관광문화재단 최우수 DMO선정 | 남해대교 벚꽃축제 | 웹진<꽃섬 남해> 발행 이벤트



너무 예뻐 당장 가고 싶은 꽃섬 남해 산책



꽃섬 남해는 4월이 되면 봄을 앞둔 여행자들이 넘쳐난다. 치유법은 단 하나, 남해의 꽃밭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거기다 대지의 봄기운을 느끼고 바다 경치까지 더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 2023년 어떠한 시련도 다 극복할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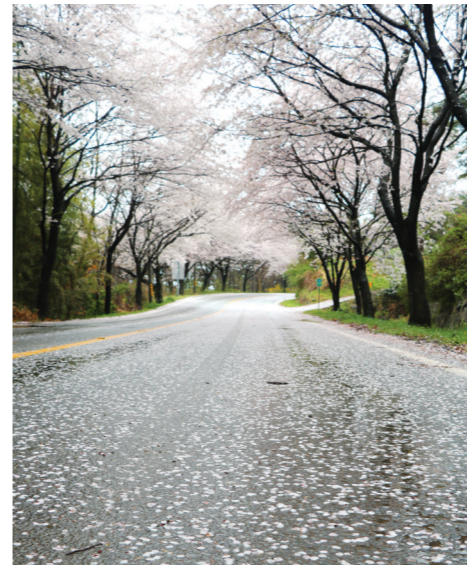
꽃 백신 한 방 맞고 싶다면 보물섬이자 꽃섬인 남해를 가라. 남해대교를 건너자마자 이곳이 꽃 천국임을 알게 된다. 여느 뱃나무가 아니라 목격한 고목에서 핀 꽃은 솜사탕처럼 풍성하며 색 또한 곱다. 길가에 내걸린 '한국의 아름다운 길' 이정표는 얼마나 이 길이 황홀한지 말해준다. 꽃 터널을 달리다가 고갯마루에 서면 계단식 논과 남해대교 그리고 벚꽃길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남해대교 교각 아래에 섰다. 이번에는 노란 유채꽃이 벚꽃과 서로 예쁘다고 싸우는 듯하다. 이 풍경에 엉덩이가 들쭉거리려 도무지 차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내 발로 걷고 가슴으로 느껴야 꽃의 진수를 만끽할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의 가묘가 있는 충렬사를 지나 왕지마을까지는 그야말로 꽃 터널이다. 바다 건너 하동 쪽에서 바라보면 이곳은 거대한 은

가락지처럼 보인다. 하늘 한 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한데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면 조물주가 만들어낸 천국을 살짝 맛보게 된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이 참으로 고맙다. 10분쯤 걸었을까?

바닷가에 한 무더기 노란 유채꽃밭이 손짓한다. 다이빙하듯 노란 물결 속으로 풍덩 빠져 허우적거린다. 샛노란 유채와 핑크빛 벚꽃 그리고 저 멀리 남해대교를 앵글에 넣고 바다를 배경 삼아 대충 셔터를 눌러도 인생샷 한 컷은 나온다.

다리가 아프다 싶으면 다시 차에 올라타 설천면 해안가를 달려라. 하늘에서 남해를 내려다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형상인데 어머니의 머리쯤에 해당하는 지형이 설천면이다. 대국산을 가운데 두고 해안선 따라 온통 벚꽃이 떠를 만들어낸다. 남해대교-충렬사-왕지-금음-진목-탑동-이락사-남해대교까지 꽃이 만들어낸 보물길에 연타를 얻어



맞은 듯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 드라이브 코스 한 바퀴가 성에 차지 않는다면 거꾸로 돌아보라. 내가 방금 본 풍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벼랑에서 내려다보는 강진만의 바다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다.

덤으로 숨겨진 꽃 여행지 하나 소개한다. 대국산성까지 차로 오르면 성벽 옆에 오래된 빛나무 한 그루가 장승처럼 서 있다. 산꼭대기에서 홀로 바람과 싸우면서도 건강하게 자란 나무가 참으로 고맙다.

꽃그늘 아래 서면 길쭉한 강진만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꽃 먼미를 앓는 것은 봄날 최고의 호사다.

세상이 힘들고 팍팍할 때 남해 꽃그늘을 걸어라.

꽃과 바다가 그대의 어깨를 토닥여줄 것이다.



꽃과 바다가 한데서 어우러지는 꽃섬 남해

꽃물결이 춤을 추는 봄날에는
꽃 피는 섬 남해에 가야 한다.
남해는 벚꽃터널과 바다를 향해
발을 담그는 유채와 섬과 섬을 잇는 사이에
지천으로 꽃이 펼쳐진다.
꽃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풍경은
분명 남해에서 봐야 제대롭다.





이 섬사람의 억척스러움이 새로운 경관을 만든다 다랭이마을 유채꽃

사계절 녹색 물결이 하늘거리는 곳이 남해다. 봄이면 매화, 벚꽃, 유채가 마늘밭과 한데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45도 경사에 108층의 다랭이논은 한 치의 땅도 놀리지 않는 남해사람들의 억척스러움을 볼 수 있다. 마을은 절벽에 자리하고 있으며 물살까지 세 선착장 하나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배 한 척 없는 마을로 통한다.

미국 CNN 선정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면서 외국인까지 열광한다. 겨울부터 시금치와 마늘이 자라더니 봄이 되면 계단식 논은 유채꽃이 주인공 행세를 한다. 계단식 밭에 꽃을 피워 마치 콜로세움 경기장에 앉아서 열광하는 로마시민들 같다.

바람 때문인지 어깨를 맞닿은 집들은 창문이 작다. 파랑, 주황 등 원색의 지붕을 가진 집들을 기웃거리며 미로 같은 골목을 설렁설렁 산책하면서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암수바위를 만나게 된다.

높이 5.8m, 둘레가 1.5m 거대한 숫바위가 하늘 향해 서 있고, 그 옆엔 아기를 뱀 배부른 여인의 형상을 가진 암바위가 다소곳이 앉아 있다. 이 바위에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이 있다. 해변으로 내려가면 작은 섬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출렁다리가 놓여 있다.

할머니 주름을 닮은 논두렁 산책길을 따라가면 팔각정이 나온다. 안반낙도를 만끽하기에 최고다. 달빛을 받으며 다랭이마을을 거니는 '다랭이마을 어쿠스틱 달빛 걷기(7~10월)'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리고 있다.

세상 근심을 잊고 싶다면 다랭이마을에 가서 680개 밭을 마주하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란 바다와 노란 유채가 넘실거리는 풍경은 꿈처럼 달콤하다.

☀ 여행팁

가천관광안내소 055-863-3893 | 남해군 남면 남면로 702 다랭이마을 제1주차장 | 입장료 없음. 주차장 협소 | 마을 안쪽은 골목이 좁아 차량 통행 금지. 마을 위쪽 도로에 주차하고 도보로 마을을 산책하는 것이 좋다.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02

노란 물결 출렁이는 남해의 시크릿가든, 두모 유채꽃

봄에 제주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유채밭을 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굳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지 않아도 그에 못지않은 유채밭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남해 두모마을이다.

앵강만 해안선을 따라 상주 해수욕장 쪽으로 달리다 보면 남해의 시크릿가든이 나온다. 두모마을은 4월 초가 되면 온통 하얗고 노란 꽃세상이 된다. 남해는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곳곳이 꽃세상으로 변한다. 바다를 곁에 두고 꽃길을 드라이브하는 즐거움도 더욱 커진다. 벽면마을을 지나 오른쪽으로 두모마을 내려가면 놀랍게도 계단식 밭이 숨어 있으며 노란 유채꽃과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바다 건너 여수 땅까지 조망이 된다. 큰 도로에서는 이 멋진 꽃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히 숨겨진 시크릿가든이라 불려도 좋다.

상주면에 있는 두모마을은 유채꽃 풍경이 남해에서 가장 아름답다. 4월 초면 마을 입구부터 2km 정도 이어진 오솔길을 걸으며 남해의 파란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다. 발두령 사이를 내려가면 '드므개'라는 커다란 글씨가 보인다. 하늘에서 다랭이논의 형태 보면 항아리 형상인데 마치 궁궐 처마 아래 화재를 대비한 그릇인 '드무'를 닮아서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유채꽃뿐 아니라 수선화, 해당화, 도라지, 히어리, 맥문동, 작약, 구절초, 메밀꽃 등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야생화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꽃향기를 맡으며 계단식 논두렁을 산책하는 재미가 그만이다.

원래 두모마을은 유채꽃 천지로 유명했지만, 주변에 야생화를 심고, 툇립, 메밀꽃 등을 심어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게 조경을 하면서 유채밭 면적은 줄었지만 봄 소풍 삼아 유채꽃밭 사이를 산책하는 매력은 그대로다.

매년 4월에 유채꽃 축제를 마을에서 개최하고 유채꽃을 배경으로 개매기 체험과 맨손 고기 잡기, 조개잡이, 카약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물론 해안가에서 너른 바다를 감상하는 것은 두모마을이 주는 덤이다. 마을 언덕에 서면 두모마을의 항아리 형태를 조망하게 된다. 고개를 넘으면 소량마을, 대량마을 등 보석 같은 어촌 마을이 숨어 있다.



☀ 여행팁

남해군 미래전략사업단 특화사업팀 055-860-3624 |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3번길 18 | 입장료 없음 | 주차 가능





03

바다로 이어지는 동백꽃 터널 추도공원 동백꽃

동백꽃 터널이 원시림처럼 이어진 추도공원.
걸을 때마다 '여기 너무 예뻐'가
절로 나오는 산책로다.
바닷가와 동백숲이 아기자기 펼쳐진다.



창선대교를 넘으면 오른쪽에 위치한 추도공원. 산책로 입구에 주차를 하고 계단 몇 개만 오르면 동백 터널이 펼쳐진다. 창선도에서 숨겨진 명소라 인적이 드물다. 차도 없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아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추도공원 물고기와 꽃게 동상이 있는 앞길로 걸어가면 방파제가 나온다. 방파제 옆으로 몽돌과는 다른 암석들로 이루어진 해변이 있다. 큰 암석들로 이루어진 해변은 신비한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에서 일출을 볼 수 있어 여행객들이 종종 찾는다고 한다.

해안가를 뒤로 하고 산책로를 따라 추도공원으로 올라가면 입구부터 동백나무가 반긴다. 추도공원은 동백공원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동백은 개화시기가 유동적이지만 올해는 3월 중순이면 만개한다고 한다. 이곳은 마을 주민이 산책로도 쓰고, 쓰레기도 주우며 관리를 하고 있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동백꽃은 개화시기가 길고 꽃송이째 떨어진 동백꽃의 풍경도 운치를 느낄 수 있어 산책 삼아 동백꽃 구경을 나서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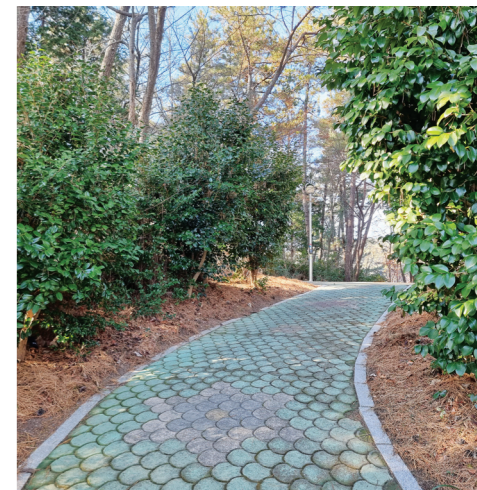
길게 이어진 산책길은 연신 너무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게 만든다. 간간이 심어져 있는 동백나무와 길게 솟아오른 편백나무가 눈도 마음도 시원하게 해준다. 산책로는 경사가 급하지 않고 계단과 산책로가 잘 구성되어 있어 천천히 걷기에 안성맞춤이다.

바래길 코스에 추도공원 구간이 이어진 것도 너무 아름다워 꼭 걸어보라는 뜻일 것만 같다. 추도공원은 남해 바래길 코스 중 하나로 본선 5코스 말발굽길로 적량마을부터 시작해 추도공원을 지나 창선교 남단까지 총 12km를 걷는 코스다. 바래길 코스를 걷는 중에 추도공원을 방문한다면 동백꽃 터널과 바다가 지척에 두고 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 묘미가 있다. 동백 터널길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 좋고 바다를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기기도 좋다. 추도공원은 잘 알려지지 않아 자연의 원시적인 흔적을 품고 있어 동백꽃에 빠져들기 좋은 여행지다.

산책로도 완만하고 편백나무와 동백나무, 벚꽃나무까지 울창한 산책길과 바다로 내려가는 비밀의 계단 같은 아늑한 풍경을 선물한다.

☀ 여행팁

1588-3415 |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추도공원 | 입장료 없음 | 주차 가능



04

해안선 따라 남해 최고의 벚꽃길 왕지마을 벚꽃

연분홍 벚꽃 터널이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왕지마을. 해안도로를 따라 벚나무가 심겨 있어 감탄사를 연발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벚꽃길과 더불어 어촌체험도 할 수 있으니 봄날에 즐기는 매력이 가득하다.

왕지마을은 벚꽃길로 유명하다. 남해대교 아래 총렬사부터 문의리까지 약 5km 정도 이어지는 벚꽃길은 터널을 이루고 있어 꿈결처럼 아름답다. 4월이면 해안도로를 따라 벚나무가 심어져 있어 연분홍 물감으로 가득 채운 그림 같은 풍경에 입이 짝 벌어진다. 웅장한 남해대교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고 분홍 벚꽃과 노란 유채꽃이 동시에 피면 황홀한 풍경이 펼쳐진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곳을 찾으면 인생 샷을 찍기 위해 여행객들이 북적거린다.

왕지마을은 예로부터 서당이 많아 선비마을로 알려져 있고 태조 이성계는 남해금산에서 백일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 마을의 아름다움에 취해 마을에서 쉬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왕지등대마을은 농어촌복합체험마을로 선정되어 농촌과 어촌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농부 체험, 갯벌생태 체험, 개막이 체험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개막이 체험은 바닷가에 그물을 설치한 뒤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에 들어가 직접 물고기를 잡는 체험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또한 왕지마을에서 총렬사까지 드라이브도 좋지만 벚꽃 터널과 유채꽃이 만발한 해안도로를 산책하는 것도 꼭 추천한다.



☀ 여행팁

남해 왕지마을 벚꽃길은 남해대교를 지나 총렬사가 있는 노량삼거리에서 문의리까지 설천해안도로를 따라 이어진 약 5km 구간이다.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남해군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 055-860-3935 | 설천면 설천로 864번길 53 | 주차는 공영주차장과 마을 주차장 이용



강진만의 봄날은 운슬처럼 감미롭다

남해대교 아래에서 왕지를 지나 설천면 이어마을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2시간 정도 천천히 바다를 곁에 두고 달릴 수 있는 강진만 드라이브 코스다.
봄날의 화사한 꽃 터널과 갯벌을 따라 쪽 뺨은 강진만은 봄날 최고의 보물 보따리를 선물한다.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나비를 만나는 관문

새로 개통된 노랑대교 대신 남해대교를 건넌다.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남해대교는 1973년에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다. 남해대교를 지나는 동안 눈길은 다리 건너 충렬사 부근을 기웃거린다. 벚꽃이 뒤덮은 노랑마을이 환한 빛처럼 반짝이기 때문이다. 충렬사가 있는 노랑마을에서 왕지등대마을을 잇는 해안도로는 남해를 대표하는 벚꽃길 중 하나. 사실 노랑마을에서 벚꽃 터널을 따라 왕지마을까지 천천히 걸어보고 싶지만 길이 좁은 해안도로라 차창을 열고 천천히 꽃터널을 지나간다. 다음 여행지인 강진만 드라이브를 위해서다. 지도를 보다가 남해의 모습이 바다에 떠 있는 거대한 나비'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이라도 지도를 꺼내보시라. 하동과 사천을 잇는 두 연륙대교를 꼭짓점으로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나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봄과 꽃과 나비. 화창한 봄날에 얼마나 환상적인 조합인가.

봄마다 라디오를 장악하는 장범준의 <벚꽃엔딩>이 나도 모르게 특튀어나온다. 그렇다. 강진만 드라이브는 눈으로 머리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하고 몸이 즐기는 여행길임에 틀림없다.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길이 열리는 문항마을

설천면 일대는 봄에 더욱 아름답다. 특히 설천면 노량에서 왕지마을, 문항마을로 이어지는 강진만 해안도로는 봄날에 벚꽃과 유채꽃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이다. 어촌과 농촌의 나른한 풍경과 더불어 바다와 작은 마을이 어깨춤을 추는 것만 같다. 강진만 해안도로는 자동차가 많이 없어 자전거 라이딩 코스로도 인기가 좋다. 수려한 한려수도의 남해 비경을 호젓하고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은 아름다운 길이 계속 이어진다. 길게 이어지는 강진만에서 가장 핫한 곳은 문항마을이다. 문항마을은 주변의 산세와 지형이 아홉 마리 용과 비슷하다 하여 구룡포라 불리다가 선비가 골목마다 글을 읽는 소리가 낭랑해서 부러운 동네라는 뜻으로 문항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물이 빠지는 간조 때에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모세현상이 일어나면 너른 갯벌이 드러나고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문항마을어촌체험센터를 이용하면 쪽잡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개막이 체험, 조개잡이 체험, 맨손물고기잡이 체험도 가능하다. 바닷가 식당에서는 쪽요리와 해초비빔밥 등을 맛볼 수도 있다.



가장 멋진 봄날을 만끽하는 강진만

문항마을에서 체험을 충분히 즐겼다면 다시 해안도로를 달린다. 모천마을을 지나면 방파제가 붙어 있는 계섬이 나온다. 바다로 목을 내민 것처럼 특 튀어나온 주귀섬이 활처럼 둥근 모양의 해안도로가 이어진다. 이 구간은 해안도로보다는 마을길처럼 길이 좁아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가는 것이 좋다. 바다를 가슴 깊이 심호흡하며 눈에 넣는 아늑한 풍경이 계속 이어진다. 가는 방향으로 왼편은 계속 바다가 굽이치지만 오른편은 산과 경사진 들판과 오밀조밀한 마을이 듬성듬성 나타난다. 도로 위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지만 들판에는 시금치와 마늘을 가꾸는 작은 마을이 이어진다. 해안도로는 한적하지만 여유가 넘친다. 해안도로는 이어마을까지 반듯하게 이어진다. 이어마을은 포토존과 망원경이 있고 작은 놀이터가 있어 차를 멈추고 쉬기 좋다. 마을회관 옆에 화장실도 있다.

이어마을을 지나 남해읍으로 가도 좋고 도마삼거리에서 고현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순신순국공원으로 가도 좋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섬마을의 풍경을 몸으로 느끼기 좋은 강진만 드라이브. 갯벌과 바다와 들판이 올망졸망 펼쳐져 포근한 길이다. 남해의 관문에서 시작해 바다를 따라온 길이 윤슬처럼 반짝반짝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무리된다.

☀ 여행팁

- 남해관광콜센터 1588-3415
- 문항마을 :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206번길 54-19
- 문항어촌체험마을 055-863-4787
- 해안도로는 마을길을 지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
- 노량에서 설천면까지는 편의점이나 슈퍼가 드물다. 물이나 음료는 노량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식사도 총렬사 앞에서 하는 것이 좋다. 노량포구에 맛집이 몰려 있다.
-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문항마을에서 어촌 체험을 하면 좋다.
- 드라이브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도 미리 준비하면 곳.



남해의 봄날을 만끽하기 좋은 보물들

남해대교나 노량대교를 넘으면 바로 만나게 되는 남해의 보물들을 소개한다.
 남해대교와 남해각 총렬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노량포구는 3월 말부터 벚꽃 터널을 이룬다.
 총렬사 앞에서 왕지마을을 지나 문항마을에서 갯벌 체험을 즐겨도 좋다.
 남해의 봄을 가장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설천면과 고현면 일대를 드라이브로 즐길 수 있다.
 남해에서 최고의 호사를 누리고 싶다면 딱 봄에 가면 된다.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천국이 따로 없다.



☀ 여행팁
 055-864-1905 |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 | 여행
 자플랫폼 | 09:00~17:00 | 월요일 휴무 | 주차 가능

이 여관에서 여행자 플랫폼으로 변신 남해대교와 남해각

1973년 6월 22일 남해대교 개통식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준공 테이프 커팅하고 남해대교를 도보로 건너갔다. 이때 환영 나온 남해사람들이 무려 10만 명, 섬사람 전부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섬에서 육지가 되는 것은 이들에게는 염원이자 축복이었다.

당시 동양 최대의 현수교인 남해대교는 길이 660m, 높이 80m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손꼽혀 70년대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의 필수코스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金門교를 본떠 만들었으니 다리 구경하겠다고 남해를 찾는 사람으로 인산인해. 심지어 부산에서도 이곳까지 쾌속선이 뜰 정도였다.

1975년 남해를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휴게소를 오픈했으니 그것이 바로 남해각. 남해대교의 주탑을 형상화한 기둥보 위에 건물을 올려 그 자체만으로 예술미가 뛰어난 건축물이다. 당시 해태제과가 북쪽에는 임진각을, 남쪽에는 남해각이라는 휴게소를 조성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랜드마크로 삼았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해태 부라보콘을 입에 물고 다리를 감상해야 제 맛이 난다. 해태의 형상 2기는 당시 해태제과가 운영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개장했을 때는 나이트클럽, 양식당, 찻집, 여관까지 들어차 있었다. 그래서 남해사람들이 결혼식 상견례 자리가 있을 때는 이곳 양식당을 찾았다고 한다.

지금은 전망대를 겸한 아카이브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여행자 센터 역할도 하고 있다. 재미난 남해 굿즈도 구입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맡기면 돛자리, 꽃, 의자 등 피크닉 세트(최대 7일)를 무료로 빌려줘 남해 곳곳을 둘러보며 감성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공간(남해각공유오피스)도 갖추고 있다.



02

충무공 이순신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 총렬사

이순신 장군이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순국하자 노량포구의 동쪽 언덕에 유해를 안치해 가묘를 만든 곳이다. 총렬사 안에는 사당과 재실을 비롯해 비각, 내삼문, 외삼문, 가묘 등이 있다. 1598년(선조 31)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지 35년 뒤인 1633년(인조 11) 초사와 비를 세워 추모하였고, 1658년(효종 9)에 사당을 건립하고 비도 다시 세워 1622년(현종 3)에는 '총렬사'라는 사액을 받았다. 이 사당은 1661년 중수한 사유를 자세히 기록한 송시열의 비문이 있다. 시간을 내어 꼭 사당에 올라보자. 총렬사 앞에는 거북선 모형의 전시관도 있어 같이 둘러보면 좋다. 커다란 나무들이 사당을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도 인상적이고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노량포구와 남해대교가 바로 보이는 전망도 좋다.



☀ 여행팁

1588-3415 | 설천면 노량리 총렬사 | 09:00~18:00 | 입장료 무료 | 주차 무료



03

아침식사와 혼밥도 가능한 생선구이 전문점 산성식당

남해대교 아래 노량마을에는 어머니의 손맛이 가득한 산성식당이 있다. 남해에서 채취한 농산물과 수산물에 한상 가득 나온다. 해풍 먹고 자란 썩을 폭고야 만든 시래깃국은 그야말로 보약 한 사발 마시는 기분. 남해에서 채취한 미역, 마늘종, 오이, 다시마, 동그랑땡, 묵은 김치 등 깔끔하고도 정갈해 바닷가 가정식 백반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이 집의 메인은 생선구이다. 가자미, 고등어 등 제철생선이 노릇노릇 구워 나온다. 하얀 밥에 생선살을 얹어 입에 넣으면 바다향이 솔솔. 제철 따라 식탁에 오르는 생선구이가 바뀌는데 무엇보다 짜지 않아 좋다. 아침 일찍 식사도 가능하고, 혼자서 주문해도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 후 노랑 바다를 어슬렁거려도 좋고 총렬사에서 이순신 장군 가묘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

☀ 여행팁

055-862-2868 | 설천면 노량로 183번지 22-10 | 08:00~20:00 | 생선구이 정식 12,000원, 장어탕 12,000원, 재첩국 10,000원 | 인근 주차장

04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라떼 맛집 카페 월마

남해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조금씩 입소문이 난 라떼 맛집 월마. 총렬사로 올라가는 길 바로 앞 모퉁이에 월마 카페가 있다. 모퉁이 조은호텔 1층이다. 총렬사와 거북선이 있는 노량포구가 창문 너머로 펼쳐진다. 이곳은 바닐라라떼의 감미로운 맛도 일품이지만 프로방스 풍의 포근한 분위기도 일품이다. 입구에는 화분이 아가지기 놓여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얀색 실내 분위기에 깔끔한 소품들로 가득하다. 월마는 일명 라떼 맛집으로 유명한데 바닐라라떼는 달달하면서 깊은 향이 입안에 가득 고일 정도로 진하고 향기도 좋다. 봄날의 햇볕을 가득 채워주는 넓은 창문에 기대어 나른한 여유를 만끽하기 좋다.



☀ 여행팁

0507-1364-0400 | 남해군 설천면 노량로 183번길 22-1 | 10:00~22:00 | 바닐라라떼 5,000원, 아메리카노 4,000원 | 카페 주변 주차 편함



05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촌집 갤러리 돌탑갤러리

자칭 '할매 화가'가 설천면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민박집을 개조해 2022년에 갤러리를 열었다. 고창선(67) 작가는 예순 살이 되던 해 손주 넷을 돌보다가 우연한 기회로 그림을 시작해 2017년 '세 친구의 행복한 꿈 그림전'과 '고창선 개인전'을 열었다. 올해도 눈내목욕탕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선의 그림은 어린 시절 추억과 이웃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 주변의 사물과 생물과 풍경에 대한 애정이 그림에 가득하다. 이렇게 작가가 풀어낸 이야기와 감동이 촌집 갤러리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오래되고 야트막한 시골 민박집이 방을 트고 조명을 달고 마당에 지붕을 얹어 아늑하면서도 정이 넘치는 전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남해에서 그림 작업을 같이 하는 작가들과 공동 전시도 하고, 사랑방처럼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다. 고창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을 갤러리로 바꾸고 살림집이 바로 아래에 있다. 365일 문을 열지만 외출할 경우는 문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아 연락하면 된다고 귀띔해 주신다.

☀ 여행팁

010-8558-5382 |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758 | 10:00~18:00 | 각종 차와 음료는 셀프 2,000원 | 도로변 주차

06

복지회관이 목욕탕 미술관으로 재탄생 눈내목욕탕미술관

설천초등학교 앞에 쓰임이 다한 복지회관이 2022년에 '눈내목욕탕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눈내목욕탕미술관은 기존 목욕탕 형태를 그대로 살려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2층은 당구장을 만들어 설천면민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거듭났다. 미술관은 수도꼭지와 온탕, 냉탕 등 목욕탕의 시설을 그대로 살리고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욕탕 입구에는 해설사가 상주하고 소파가 있어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미술관 내부는 제법 넓어 왼쪽부터 동선을 따라 천천히 그림을 감상하기 좋다. 그림 전시 일정표가 입구에 안내되어 있어 1년 내내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다. 눈내목욕탕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 여행팁

055-860-8484 | 설천면 설천로 696번길 16(설천초등학교 앞) | 입장료 무료 | 인근 주차장 이용 | 화장실 있음



07

바다가 아름답게 빛나는 하얀집 티라와 흙꿍노리

설천면 바다가 보이는 마을 앞에 지중해 풍 하얀 건물이 눈에 띈다. 원래 티라게스트하우스를 하던 곳이 도자기 공방과 카페를 겸한 흙꿍노리로 변신했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서 강진만 바다 풍경과 도자기 작품을 보며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게스트하우스를 개조해 공방을 만들고 소품 전시실과 놀이 체험장을 만들어 가게 규모는 작지만 아늑하다. 도예 체험장과 가마를 갖추고 있어 원데이클래스 도자기 체험을 예약할 수 있고, 즉석에서 소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 여행팁

010-3310-1729 | 설천면 설천로 587 | 10:00~17:00 | 아메리카노 3,500원, 수제 차 4,500원 | 주차 가능

08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과 목장 남해상상양떼목장 편백숲

남해의 양떼목장들은 바다를 배경 삼아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 동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다. 남해상상양떼목장 편백숲은 10만 평 초지에 자리하고 있다. 적당한 높이의 언덕에서 한려수도의 절경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먹이주기 체험과 양몰이 체험은 아이들이 좋아한다. 앵무새 체험관에서는 거대한 새장 속으로 들어가 앵무새를 만나게 된다. 바다를 배경으로 빨간 종과 눈사람 포토존이 있으니 인생샷 한 컷을 남겨보라. 초지에 누워 양들과 함께 마음껏 바다를 감상해도 좋다. 지루하다 싶으면 하늘 한 점 보이지 않는 편백숲에 들어가 산림욕을 해보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 또한 상상양떼목장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남해양떼목장 양모리학교도 가보자.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작은 기차를 타고 관람할 수 있고, 토끼, 당나귀 등 다양한 동물친구를 만날 수 있다.



☀ 여행팁

055-862-5300 |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775번지길 364 | 09:00~18:00 | 입장료 성인 9,000원, 어린이 6,000원 | 주차 가능, 연중무휴



09

남해바다를 품은 산성 전망대 대국산성

강진만 바다를 멋지게 조망하고 싶다면 대국산성에 오리라. 협소한 길이지만 산성 아래 400m 전까지 차로 갈 수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대국산성은 대국산(376m) 정상 일대 약 1.5km에 둘러 있다. 성벽의 높이는 5~6m, 낮은 곳은 2~3m, 폭은 2.4m 정도 된다. 어찌나 튼튼하게 성을 쌓았는지 요즘 건축한 것처럼 보존 상태도 좋다. 성 한 바퀴 도는데 20여 분이면 족할 정도로 다리에 부담이 없다. 아무래도 대국산성의 백미는 부드러운 곡선미다. 산도 바다도 해안선도 성곽도 모난 것이 없다. 울퉁불퉁한 돌도 편하게 느껴진다. 중간쯤 걸으면 전망 포인트가 나온다. 망운산과 금산 그리고 강진만 해안선 그리고 저 멀리 남해읍까지 조망된다. 사방 거침없는 풍경이 대국산성에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곳의 연못은 계단식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인데 장기전을 위한 물 확보가 아닌 가 싶다. 봄에 이곳을 찾아야 할 이유는 입구에 있는 빗나무 노거수다. 어찌나 잘생기고 우람한지 꽃그늘 아래 서면 기분이 좋아 미소가 번진다.

☀ 여행팁

1588-3415 |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산 34-1 | 도로에서 차를 타고 2km, 길이 협소하기에 교행에 신경 써야 한다.



10 성웅 이순신의 활약을 그린 세계 최대 도자기 벽화 이순신순국공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왜구의 총탄에 맞아 순국한 장소가 관음포다. 이 성지에 이순신 장군의 넋을 기린 이락사가 자리해 의미를 더한다. 그 옆에는 거북선 모양을 한 이순신영상관이 자리하고 있다.

호국광장에는 판옥선 모양의 석조물이 서 있고 한가운데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바다를 응시하고 있다. 판옥선 장대 위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도 가슴을 움켜쥐고 끝까지 전장을 힘차게 지휘하고 있는 장군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군을 묘사하고 있다.

이곳의 최고의 볼거리는 높이 5m, 길이 200m의 대형 도자기 벽화로 세계 최대규모다. 가로 50cm, 세로 50cm 도자기를 3천 797장을 구워 일일이 붙여 벽화를 완성했다. 가마에 구우면 도자기가 변형되고 뒤틀리기에 8천 장이 넘는 도자기를 구웠을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다고 한다.

벽화는 출정, 승리 기원, 전투, 순국 그리고 오늘날 남해의 모습까지 총 5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순국의 벽 뒤쪽 각서공원에는 충무공과 임란에 대한 스토리를 전시관으로 만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칼 조형물뿐 아니라 총알에 뚫린 심장 등 장군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물이 전시되어 있다. 조망데크에서 바라본 일몰이 끝내주며 밤에는 야간 멀티쇼를 감상할 수 있다.

관음포광장에는 리더십 체험관, 대장경공원, 공연장 등이 있어 산책 삼아 둘러보기 좋다. 특히 이순신인물체험공원은 놀이를 통해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꾸며져 아이들이 좋아한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종결시킨 노량해전. 이순신순국공원은 성웅 이순신의 활약과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다.



☀ 여행팁

남해군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 055-860-8645 |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43 | 입장료 무료, 주차 무료 | 화장실 있음



나만 알고 싶은 맛집 & 카페

남해의 여행을 빛나게 해주는 맛집과 카페를 꼭 집어 소개한다. 남해는 섬이 크고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그래서 맛집과 카페에 대한 위치와 동선을 여행할 때 꼭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너무 맛있어서 숨겨두고 싶은 노포와 요즘 핫한 카페와 힐링빌리지, 로컬매장까지 절대 후회하지 않을 남해의 보물들을 모두 모았다.

01 청년들이 모여서 놀기 좋은 곳 남해청년센터 바라

남해군청 앞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남해청년센터 '바라'는 남해를 찾는 청년들의 거점이 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정보와 회의 공간, 전시 공간,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오래된 한옥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하고 마당을 두고 공간을 연결하는 구조여서 다양한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있다. 강연, 전시, 회의 등 청년들을 위한 행사도 진행하고 모든 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큰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가면 잘 꾸며진 연못 정원과 고즈넉한 한옥이 반긴다. 햇볕 좋은 날은 한옥 뒷마루에 앉아 차를 마셔도 좋다. 작업실, 코워킹플레이스 등은 무료로 쓸 수 있고, 모임을 위한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면 대관 신청을 하면 된다. 남해군청과 단골집, 백반집 등이 즐비한 맛집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남해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 시 멀티라운지, 상담실, 상담실2 이용이 가능하고, 공영주차장도 인근에 있다.



☀ 여행팁
0507-1472-1990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16 | www.namhae.go.kr/youthcenter | 월~금 10:00~21:00, 토 10:00~20: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입장료 무료

02 매일매일 천사가 있는 쌍식이 아재 빵집 행복베이커리

매일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새벽부터 빵과 요거트를 나눠주는 쌍식이 아재가 운영하는 남해읍내 빵집. 오랜 기간 선행으로 <유 퀴즈 온 더 블록>을 비롯해 방송과 신문에 소개되면서 주말마다 쌍식이 아재와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인산인해다. 단지 방송에 나와 유명세를 타서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빵이 정말 맛있는 빵집이다. 시금치 비스킷슈, 유자쌀만주, 유자 카스텔라, 마늘식빵 등 달지 않고 풍미가 가득해 입에서 살살 녹는다. 빵이 엄청 부드럽고 빵 안에 유자 앙금도 매우 상큼하다. 남해 특산품인 시금치, 마늘, 유자를 활용해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해 선물용으로 넉넉하게 구입해 '선한 영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 여행팁
055-864-8249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 07:00~22:00 | 시금치 비스킷슈 1,500원, 유자쌀만주 2,000원, 유자 카스텔라 2,000원, 마늘식빵 5,000원 | 주차는 인근 주차장 이용

03 점심시간에만 문을 여는 로컬맛집 단골집

지역에서 식당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광지보다는 군청이나 경찰서 등 관공서 근처에서 찾는 것이다. 남해군청 앞에 있는 백반 전문의 단골집이 그렇다. 점심시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다. 15첩 반찬이 화려한 것이 아니다. 늘 먹는 집밥 정도 반찬이 나오는데 파가 송송 들어간 계란말이, 남해 보물초인 시금치, 특산물인 멸치, 파프리카, 양배추, 콩나물 등 남해산 식재료가 맛의 비결이다. 먹음직스럽게 구운 굴비와 얼큰하면서 달콤한 두루치기가 메인으로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운다.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소개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 여행팁
055-864-5190 | 남해읍 망운로1-17 | 점심시간에만 영업. 오전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 수음 인원만 예약을 받는다. | 정식 10,000원 | 공영주차장 이용



04

입에서 살살 녹는 갈비맛 최고 화랑갈비

명불허전. 갈비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 매일 김해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아 40년 넘게 손질해서 파는 주인장의 정성이 담겨 있다. 식당은 옛날 집을 개조해 포장마차 같은 풍경이다. 처음 가도 단골이 된 것처럼 정겨운 식당 풍경이다. 생갈비와 양념갈비 두 가지 메뉴가 전부이다. 남해읍 군청 앞 식당가 회화나무 옆에 자리 잡은 화랑갈비. 붉은 간판 하나에 대문이 전부인 노포다. 갈비와 시래깃국, 상추 무침, 공깃



밥 하나로 단출한 밥상이지만 엄마의 손맛처럼 정겹고 맛이 진심으로 전해지는 갈빗집이다. 허영만의 백반 기행에 소개될 정도로 토박이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한 갈빗집이다.

☀ 여행팁

055-864-2360 | 남해읍 화전로 38번길 21-1 홈페이지 없음 | 11:00~20:00 | 생갈비, 양념갈비 10,000원(2인분 이상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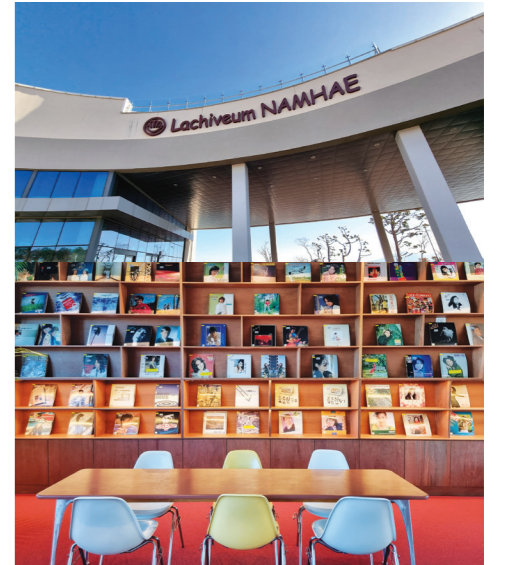
06

LP뮤지엄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남해

올해 2월 26일 창선면 장포리 일대에 주거, 숙박, 문화 공간을 갖춘 힐링빌리지 라키비움 남해가 문을 열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의미가 담긴 말로 복합문화공간이다. 관리와 운영을 맡은 MBC 경남에서 보유하고 있는 1만 1천여 장의 LP가 1층 카페 겸 도서관을 가득 채우고 있다. 1층 카페 브라운핸즈 남해는 입구에서 커피를 구입해 LP카페나 야외 테라스에서 해안 절경을 마당으로 삼아 여행객들이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공간이다. 카페 2층에는 갤러리가 있어 연중 미술품 기획전시도 이어진다.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남해군에서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힐링빌리지를 표방하고 진행한 프로젝트로 넓은 주차장, 베이커리, 캠핑장, 주거단지, 호텔 등도 들어선다고 한다.



라키비움 최고의 매력은 바다다. 에메랄드빛으로 빛나는 바다를 맘껏 볼 수 있고, 주변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어 금상첨화다. 데이트 코스나 휴식을 위한 여행지로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다.



☀ 여행팁

055-867-4608 | 창선면 흥선로 1437-338 | 아메리카노 5,800원 | 10:00~18:00 | 입장료, 주차비 무료



☀ 여행팁

055-864-4664 | 남해읍 스포츠로 173-9 | 10:00~18:00 | 아메리카노 4,000원, 유자청 12,000원 | 주차장 있음



05

프리미엄 어묵카페 & 남해 선물 가게 바래온

남해에 햇볕 좋은 마당을 품고 하얀집에 통 넓은 창으로 꾸민 카페 바래온. 이곳은 이국적인 분위기에 수제 어묵, 남해 특산물, 기념품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차도 마시고 아끼자기한 특산품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우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수제 어묵이 눈에 띈다. 남해마늘, 파래김, 유자청, 남해의 특징을 담은 액세서리, 수제 음료 등 로컬매장이 눈에 띈다. 날씨가 좋으면 카페 마당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좋고 카페 뒤편의 벤치에 앉아서도 좋다.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어 아늑하고 편안한 풍경이 아주 좋다.

내부에 있는 테이블도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조명과 통유리로 된 넓은 창은 탁 트인 전망을 선물한다. 수제 어묵은 먹기 좋게 잘라서 케첩과 소스와 함께 나온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잘라 나오고 유자차와 커피를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다.



☀ 여행팁

010-5177-8520 | 남해군 남면 남면로 679번길 17-27 | 11:00~17:00 | 매주 화, 수, 목요일 휴무 | 1몰(쌀빵+드립커피 8,000원), 7몰(쌀빵+유기농요거트 9,000원) | 주차 불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꽃밭과 정원 카페 톨

남해 다랭이마을의 카페 톨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마을의 메인로드에서 살짝 비켜 있다. 그래서 조용한 공간이 자랑이다. 화단을 지나 빨간 나무 의자에서 앉으면 그야말로 바다가 와락 품에 안긴다.

주인장의 마음을 닮아서인가? 이곳은 사계절 꽃이 핀다. 2월에도 톨립을 만날 수 있으며 4월이면 다랭이 논두렁은 온통 유채로 가득하다. 쪽빛 바다와 노란 유채의 강렬한 대비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태리의 소도시의 레몬밭을 보는 것 같다. 큼직한 간판도 없으며 테이블도 별로 없지만 입소문으로 알음알음 찾아온다. 주황색 지붕을 가진 카페 안으로 들어가면 감성 넘치는 서적과 엽서로 가득하다.

메뉴도 건강식이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오디를 갈아 만든 오디스무디. 상큼한 맛을 자랑하는 남해유자스무디 등 꽃밭에서 바다를 벗 삼아 건강음료를 음미하면 절로 행복이 찾아온다. 상호명 '톨이 크다(tall)'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지만 실은 쌀알을 셀 때 쓰는 단위를 말한다고 한다. 그래서 음료를 주문하면 쌀빵이 하나씩 나온다. 이곳에서 일하는 스텝은 남해 한 달살이 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속도도 늦고 능숙하지 않은 것을 정성과 열정으로 메꾼다. 카페 주인 송순영 대표의 한 달살이 하는 청년들을 매달 전국적으로 모집해 자비로 생활비를 주면서 남해에 대한 느낌을 창작물로 받는다고 한다.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구석구석 찾아가 발견한 인생샷 포토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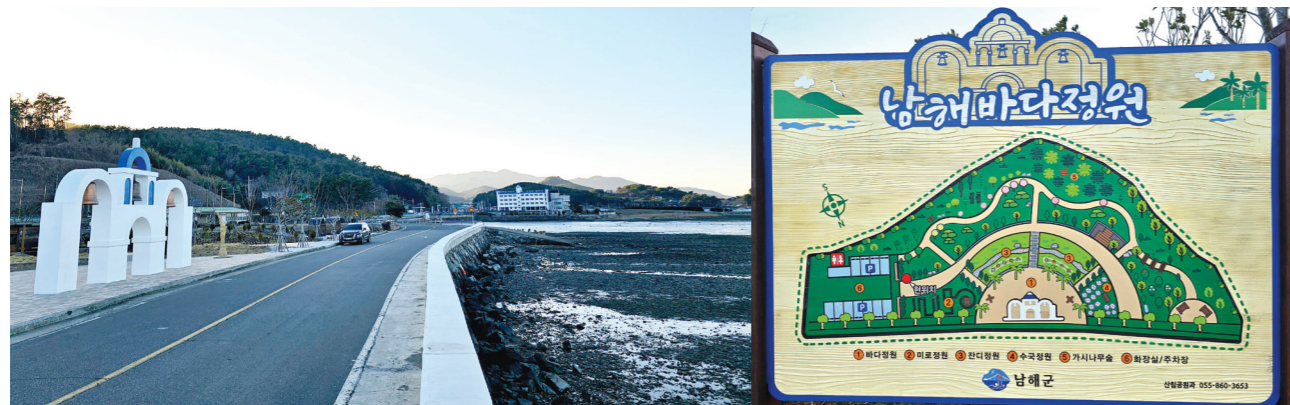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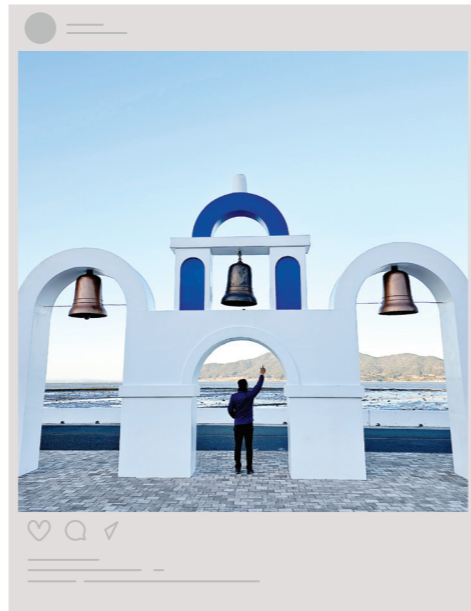
남해에 숨겨진 포토존을 구석구석 찾아가 딱 3곳을 추천한다. 인생샷을 찍어도 좋고, 드라이브로 찾아가도 좋고, 오랫동안 머물며 망중한을 즐겨도 좋다. 봄날에 찾아가면 더욱더 좋은 남해의 숨겨진 포토존 3곳을 추천한다.

01

남해의 산토리니 바다정원 오션뷰 포토존 남해바다정원

위치: 이동면 죽방로 877

남해읍에서 이동면 가기 직전, 큰길에서 좌회전하면 해안도로가 이어지는데 초입에 그리스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바다정원 포토존이 서 있다. 중앙광장에는 산토리니 하얀 집을 연상케 하는 종탑이 있으며 동종과 코발트색 아치 그리고 바다와 섬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광장에는 이국적인 꽃과 나무가 가득하다. 미로정원, 잔디정원, 수국정원, 가시나무숲 등 정원을 어슬렁거리도 좋고 벤치에 앉아 한없이 바다를 바라보면 세상 근심이 사라질 것 같다. 소위 말하는 '바다 멍 때리기'에 최고 장소다. 테이블도 여러 개 있어 김밥을 집어먹기 딱 좋다. 제법 너른 주차장과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다. 독일, 미국, 스페인 마을에 이어 그리스 조형물까지 있으니 남해에서 세계일주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바다정원에서 지족까지 강진만 해안도로를 달리는 재미가 끝내준다. 건너편 남면 해안도로나 물미해안도로가 거센 파도와 절벽을 달리는 아버지길이라면 이곳은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로 어머니의 품 안같이 따뜻한 길이다.



02

독일마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포토존 순례자의 심터_ 물건리 살롬장로교회종탑

살롬장로교회 위치: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37

산티아고 순례길이 인기 있는 이유는 자신을 반추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 오솔길을 걷다가 소박한 성당에서 십자가를 마주하며 화려함을 쫓았던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남해에도 바래길과 남파랑길이라는 멋진 바다 걷기길이 있다. 그러나 예쁜 길만 추구하다 보면 금방 질리게 된다. 오만과 허영심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건리 살롬장로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종탑에 오르면 이국적인 독일마을을 멋지게 조망할 수 있으며 뒤쪽 창으로는 물건리숲이 시야에 들어온다. 한쪽 벽면에는 '나를 만나는 순례자의 축복기도문'이 전 세계 언어로 걸려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편지를 수기로 써 빨간 우체통에 넣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7번의 행운의 의미를 곱씹고 힘차게 종을 치면 마구 희망이 샘솟는다. 마당의 벽면에는 꽃이 활짝 핀 화분 벽화와 낮은 벤치와 창문 그리고 근사한 그네가 그려져 있다. 바닥에는 파리채와 파리가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빨간 파리채가 벽돌 한 장이라니 그 발상이 재미있다. 화단에는 남해 특산물인 유자나무가 자라고 있다. 바래길이나 남파랑길을 걷는 여행자들을 위해 주일 오전 9시 여행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 할머니 지팡이같이 생긴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길 바란다.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03

BTS가 울고 갈 이색 명소 설리버스정류장

위치: 미조면 미승로 303번길 75-12

주문진 향호해변은 세계적인 그룹 BTS가 사진 찍은 장소로 국내외 그의 팬들이 바다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려고 인산인해, 주말에는 주말엔 줄을 설 정도다. 동해에 향호해변이 있다면 남해에는 설리버스정류장이 있다. 만약 BTS가 이곳을 알았다면 일부러라도 이곳을 찾았을 것이다. 향호버스정류장이 백사장에 자리하고 있다면 설리버스정류장은 언덕에 위치해 위에서 내려보는 바다 절경이 끝내준다. 붓으로 물감을 찍어내듯 수목화 같은 섬들이 바다에 박혀 있다. 뒤쪽 경치에 너무 취하다 보면 버스가 오는 것을 모를 것 같다. '차라리 버스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속내인 것 같다. 일출 때 이곳을 찾으면 붉은 여명이 바다를 수놓는다. 벼랑 아래로 내려가면 설리해수욕장, 옥색 바닷물과 밀가루 같은 백사장이 활처럼 휘어져 있다.





꽃밭, 꽃섬, 꽃 같은 남해로 오시다

조영호(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남해는
산이 많아
바다가 호수다.
강진만, 앵강만, 동대만.

남해는
산이 많아
산이 바다를 본다.
금산, 망운산, 설흘산.

남해는
산이 많아
섬이 바다를 본다.
조도, 호도, 쇠섬.

남해는
산이 많아
섬이 꽃이다.
섬이 꽃밭이다.

남해에서는 바다를 꽃바다, 노을은 꽃노을, 물빛은 꽃빛이라고 한다. 남해 사람들은 남해를 한 점 꽃 같은 섬, 꽃처럼 불렀다. 남해는 봄은 꽃으로 화사하고, 여름은 푸르고 시원하다. 가을은 진한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은 초록빛으로 따듯하다.

남해는 꽃이 섬이 되고, 길이 정원을 이룬 곳이다. 마을과 마을이 240km 바래길로 이어져 있고, 79개의 섬과 섬이 마주 본다. 남해에서 보는 바다는 망망대해가 없다. 호수처럼 잔잔하다. 산과 바다가 맑고 포근하다. 밤바다 몽돌 구르는 소리, 미조항 뱃고동 소리가 들리는 남해는 몸 전체가 시의 발신처이자 수신처이다. 남해에 오면 누구나 글을 시처럼, 시 닮은 글을 쓴다.

여행자와 현지인이 추천하는 최고의 바다 여행지는 남해군이다. 2022년 기초지자체 바다-해변 여행자원 추천율 1위를 차지한 곳이 남해다. 물미해안도로, 상주은모래비치 해안과 바다가 구불구불 아름답다.

1973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 남해대교가 개통되었다. 섬이 육지가 되었다. 올해로 개통 50주년이다. 남해대교는 '한국의 금문교'로 불리며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지로 각광받았다. 남해를 단숨에 구름 관광객이 찾는 국민관광지로 만들었다. 2023년은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맞는 벅찬 해이다.

남해여행의 시작과 끝은 남해대교와 남해각에서 시작된다. 남해대교 옆에 해태제과가 해태관광주식회사를 만들어 1975년 남해각을 세웠다. 해태제과는 이곳 남해각에서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인 부라보콘을 팔았다. 지금은 여행자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다. 위케이션을 할 수 있고 책을 읽으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남해는 노랑해전이 펼쳐진 격전지였다. 전승을 거둔 마지막 해전, 조국을 지키는 승리 터였다. 이순신순국공원과 이락사, 노랑총렬사, 창선 왕후박나무 등에서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 남해에는 독일마을이 있다. 독일마을은 2001년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정착 이주마을로 조성되었다.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돌아와 사는 마을이다. 매년 가을이면 독일마을에서는 맥주축제가 열린다. 다랭이 논, 죽방렴, 남해 금산 명승 3곳은 최고의 관광목적지이다.

꽃 피는 남해, 대국산성 왕벚나무 아래에서 한들한들 노래하고, 바다와 맞닿은 왕지벚꽃 해변을 걸어본다. 앵강다숲에서 앵강만의 꽃노을을 보고, 금산 보리암에서 상주은모래비치 바다와 섬을 이야기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발도르차 평원을 닮은 초록빛 고사리밭을 걸으며 독일마을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 여기는 남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2022년 DMO 평가 전국 1위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이 2022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지원 사업 최종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2022년도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 사업'에서 전국 총 10개 지자체 가운데 S등급, 종합 1위로 한국관광공사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의 10개 지자체가 경쟁한 이번 평가에서는 관광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DMO 사업 운영 및 지역관광 기여도 등 15개 세부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다. 재단은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난 2021년 DMO 공모사업에서 전국 2위(A등급)라는 평가를 받아 우수 조직으로 선정된 데 이어 3년 연속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재단의 다양한 관광활성화 사업들이 지역관광을 견인하는 선진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과 관광객의 연결'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남해각' 관광플랫폼을 통한 여행 편의서비스와 관광사업체 방문 유도형 콘텐츠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남해관광 온라인 전환사업 일환으로 관광사업체 디자인 패키지 지원 사업과 여행 OTA와 연계한 프로모션 사업을 추진하며 남해 관광의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 구축과 탄소중립 여행을 위한 '탄탄한 남해로 오시다 ESG 사업'을 추진해 전국 20여 개 기관 단체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던 점도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관광객을 직접 맞이하는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체야말로 남해 관광을 이끌어가는 핵심주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남해 관광을 살피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공식 출범한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 지역매력발전 국제 이벤트 사업,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사업, 코리아돌레길 쉼터 운영 사업,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남해 관광의 조력자이자 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해군, 2023독일마을 정책자문단 발대식 개최

상·하반기 자문회의, 사안별 수시·서면 자문 등 계획공모형 사업 실효성 증대



남해관광문화재단(이사장 장충남)은 지난 20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남해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2023 독일마을 정책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2023 독일마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해 선발한 관광, 문화, 홍보마케팅, 축제이벤트, 콘텐츠, 디자인 등 계획공모형 사업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 20명으로 구성됐다.

남해군청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책자문단 위촉식과 더불어 독일마을 마을호텔 스타트업, 독일마을 공식 BGM 개발, 독일마을 공식 기념품 개발, 도르프 청년마켓, 독일마을 맥주축제 콘텐츠 강화 등 계획공모형 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독일마을 현장을 둘러보며 추가적인 현장자문도 진행됐다. 자문단은 올해 상·하반기 정기 자문회의와 사안별 수시자문, 서면자문 등을 통해 계획공모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전국의 우수한 인력들로 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계획공모형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남해군 관광사업 전반의 자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단 영역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해대교 개통 50년, 남해가 활짝 핀다

남해대교 1973년 개통 50주년 기념 문화이벤트 열려



남해군, 대교개통 50주년 이벤트 '꽃 피는 남해' 예정 3월 31일~4월 1일 불꽃놀이, 바래길 걷기 등 일정

남해군이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문화이벤트를 연다. 군은 '1973 남해대교의 역사와 추억을 소환하고 남해대교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관광수익을 창출한다'는 목적으로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 '꽃 피는 남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해대교 및 노량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불꽃쇼와 문화공연, 남파랑길 봄소풍, 남해마켓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1일 18시 남해예술단체 공연으로 막을 열어 개막식과 트로트가수 하동근과 퓨전국악그룹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오후 7시 50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밤하늘에 피는 꽃'을 선보이게 된다.

이어 내달 1일에는 오전 9시 남파랑길 봄소풍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봄소풍에서는 바래길 가운데 지선 2코스 노량바래길을 걷게 된다. 노량바래길은 총 3.2km 코스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1973년 당시 의상을 착용하고 퍼레이드를 펼치는 '남해다운 퍼레이드'가 진행되며 지역전문공연단 문화공연 '드림 하이 쇼', 버블 벌룬쇼와 키다리 빼에로, 오징어 게임, 보물찾기 등이 흥미진진하게 이어질 '체험 이벤트', 역사이팅 체험 '하늘그네', 사진즉석인화 이벤트 '추억의 사진관', 림보와 딱지치기 등 각종 전통놀이 어우러지는 '명랑 운동회', 특산물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남해 마켓'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 진행으로 남해대교 차량통행이 4월 1일 06:00~20:00까지 통제된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056-860-8602)으로 하면 된다.

날짜	시간	내용	장소
03.31 금요일	18:00-18:30	개막식	남해대교
	18:30-19:00	축하공연	남해대교
	19:00-19:30	불꽃놀이	남해대교
04.01 토요일	09:00-11:0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1:00-11:3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1:30-12:0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2:00-12:3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3:00-13:3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3:30-14:0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4:00-14:3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4:30-15:0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5:00-15:3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5:30-16:0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6:00-16:3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16:30-17:00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	남해대교

웹진 <꽃섬 남해> 발행 이벤트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발행하는 웹진 <꽃섬 남해>를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맛있는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꽃섬 남해>의 봄소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문제와 답이 있어요. 참 쉽지요.

문제 남해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여행자센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남해대교 옆에 있어 전망도 아주 좋은 이곳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참여방법

1. 남해관광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travelnamhae 프로필 하단 링크 '꽃섬 남해 발행 이벤트' 클릭
2. 네이버폼으로 이벤트 참여 하면 끝.

남해관광 안내 정보

남해군 문화관광과	055-860-8601
남해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www.namhae.go.kr/tour/
남해군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mhae_gun
남해군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treasure.island.namhae
남해군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mhaegun
남해군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user/namhaegun
남해문화관광 스마트채팅	www.namhae.go.kr/SmartChat/chat.html
남해관광문화재단	055-860-3690 / https://namhaetour.org
남해관광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ntcf
남해관광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travelnamhae

관광안내소 (운영시간 10:00~17:00)

남해관광 콜센터	1588-3415
남해유배관광안내소 (월 휴무)	055-864-4025
가천관광안내소	055-863-3893
창선관광안내소 (주말운영)	055-867-5238
독일마을 관광안내소	055-867-8897
남창선대교타운 관광안내소 (주말만 운영)	055-867-5238
문화관광해설사	055-860-8605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남해각 여행자 플랫폼 (10:00~18:00, 월요일 휴무)

055-864-1905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해대로 4216
여행객들이 남해 여행의 정보를 얻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교통정보

남해공용터미널	1688-7102
남흥여객 (시내·외 버스)	055-863-3501
남해택시관광가이드	055-863-8585, 010-4169-8585

www.namhae.go.kr/tour/(남해문화관광 홈페이지 → 여행가이드 → 관광안내, 2일 전까지 신청)

발행처	남해관광문화재단
발행일	2023년 3월
기획	남해관광문화재단(055-864-4509 / https://namhaetour.org)
제작	(주)상상콘텐츠그룹(02-963-9891)

※ 이 책에 실린 모든 정보는 2023년 3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꽃
섬
남
해

